

어린이 책꽂이

▲우리 겨레의 위대한 스승 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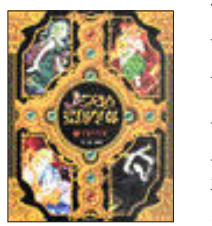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환경을 참고 이겨 낸 큰 인물들의 이야기 시리즈, 27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 오는 등 평생 조국과 민족을 구하는 일에 바친 독립 운동가 김구 선생의 삶을 그렸다. <영림 카디널·1만2천원>

▲자유 낙하= '이상한 화요일' '세마리 돼지' '자유낙하'로 세 차례나 칼데라 상을 수상한 동화작가 데이비드 위스너의 글자없는 그림책, 세부묘사와 초현실적인 그림, 다양한 화면구성이 환상의 세계를 여행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미래 M&B·9천원>



▲홍은영의 그리스 로마신화(1편 신들의 탄생)=최근 몇년간 서점가를 점령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의 저자 홍은영씨가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감성을 특유의 상상력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학습만화. 펠라스고스, 호메로스, 오르페우스, 제우스의 탄생, 티탄전쟁, 올림포스의 12신 등이 소개되었다. <마르북·9천원>

▲씨름=우리나라의 고유한 운동경기인 씨름의 멋과 흥을 오늘날의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펴낸 그림책, 씨름꾼들의 넘치는 힘과 화려한 기술, 팔팔대는 여장수의 가위질 소리, 구경꾼들의 함성소리 등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 <사계절·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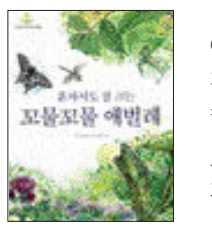
▲혼자서도 잘 크는 꼬물꼬물 애벌레=애벌레가 곤충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실적인 그림으로 실감나게 표현했다. 의인화된 곤충들을 등장시킨 세 편의 동화를 엮어 초등학교 저학년생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피랑새·9천원>

▲씨름=우리나라의 고유한 운동경기인 씨름의 멋과 흥을 오늘날의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펴낸 그림책, 씨름꾼들의 넘치는 힘과 화려한 기술, 팔팔대는 여장수의 가위질 소리, 구경꾼들의 함성소리 등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 <사계절·9천800원>



▲혼자서도 잘 크는 꼬물꼬물 애벌레=애벌레가 곤충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실적인 그림으로 실감나게 표현했다. 의인화된 곤충들을 등장시킨 세 편의 동화를 엮어 초등학교 저학년생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피랑새·9천원>

▲혼자서도 잘 크는 꼬물꼬물 애벌레=애벌레가 곤충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실적인 그림으로 실감나게 표현했다. 의인화된 곤충들을 등장시킨 세 편의 동화를 엮어 초등학교 저학년생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피랑새·9천원>



▲혼자서도 잘 크는 꼬물꼬물 애벌레=애벌레가 곤충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실적인 그림으로 실감나게 표현했다. 의인화된 곤충들을 등장시킨 세 편의 동화를 엮어 초등학교 저학년생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피랑새·9천원>

독일인이 본 100년 전 조선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겐테 지음



“열네살 살이 채 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이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과감하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어머니들이 가슴을 드러내고 젖을 물리는 일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여성들은 옷으로 가슴을 가리지 않았다.”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조선, 1901”은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의 여행기지만 여느 서양인 처럼 지적인 우월감이나, 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찾아볼 수 없다.

독일 쾰른신문사의 기자로 1901년 조선을 찾은 그는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조선과 조선인들을 바라보고 서양인들의 편견을 바로잡아 나간다.

그는 우선 당시 외국인들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렀던 조선을 ‘신선한 아침의 나라’로 해석하는 등 조선을 바라보는 기존 외국인들과 시각을 달리한다.

“조선을 지구상에서 가장 불결한 나라 중 하나로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조

자연·소박한 조선인 모습 등 그려 한반도 주변상황 객관적 묘사도



구한말의 각국 공사들. 1903년 겐테는 서울에 세워진 각국 외교대표부의 화려한 건물들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독일 공사다.

선은 유럽의 마을이나 소도시들이 본받을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교양있는 조선의 남자들은 여행 중에도 이동식 변기를 들고 다녔고, 양반들은 집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는 여행과정에서 조선 사람들을 상세히 살폈다. 부친상을 당한 조선인은 커다란 밀짚 모자같은 것을 삼년 동안 쓰고 있었으며, 상주는 처음 일년 동안 두 개의 대나무 살로 받쳐놓은 두터운 베일을 두르고 눈만 보이게 해 깊은 애도를 표현했다.

쾰른지에 조선여행기를 게재한 그는 기사 덕분에 유명세를 타면서 고종황제를 만났다. 그가 전하는 당시 고종의 모습은 팔(八)자형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현명하고 호의적인 인물이었다.

당시 수도 서울의 모습은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다. 미국적인 건물들이 일본, 러시아, 프랑스 공관이 조선의 다른 풍경을 압도했다. 일본은 영사관 본관 뿐 아니라 일장기가 휘날리는 또다른 영사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외교공관을 통해 조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읽어낸다. “조선 정부는 교묘히 밀고 들어오는 일본의 뺨뺨스러움을 통해 자신들의 무력감과 종속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지리학자이기도 한 저자는 최초로 한라산의 높이를 재기도 했다. 그는 ‘이재수의 난’이 일어난 직후 전주교인들이 집단 학살당하고 민심이 흉흉한 제주도를 찾아 한라산에 오른다.

그는 지리학자 답게 기암계를 이용해 한라산의 기암고도를 1천950m로 관측한 뒤 백록담의 분화구까지 점검하는 과정을 상세히 들려준다.

이 책은 ‘황해안을 따라’ ‘한반도를 횡단하다’ ‘수도 서울’ ‘모험과 방랑의 섬’ 등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겐테는 만주의 경제를 장악한 일본,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 중국 대륙을 놓고 벌이는 유럽열강들의 세력 다툼 등 1901년 한반도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책과 함께·1만2천원> /영림기자 penfoot@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타사 튜더 ‘행복한 사람, 타사 튜더’

화창한 날이다. 벌써 흥매화가 꽃망울을 머금고 있다. 쇼팽의 ‘라 실피드’의 활차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면 대학 1학년 인 여학생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새 공책에 단정하게 짝은 연필로 필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니체를 처음 읽기 시작할 수도 있고, 기형도의 시를 처음 읽을 수도 있다. 봄, 지성의 시작이다.

‘행복한 사람, 타사 튜더’(월북)는 동화작가이자 삽화가인 타사 튜더의 유일한 에세이다. 책 속에는 타사가 일구어낸 30만권의 정원에 피어 있는 풍경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펼쳐져 있다. 내가 ‘프랜시스 호츠슨 버넷’의 ‘비밀의 정원’을 읽은 것은 초등학교 3학년때였다. 동화가 준 이미지들이 너무 선명해서 나이가 들어서까지 오랫동안 잊었던 동화다. 타사는 그 ‘비밀의 정원’의 삽화를 그렸다.

타사 튜더는 1915년에 미국 보스턴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90세가 넘은 그녀는 평생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쓰고 그림서, 버넌의 시를 30만권이 넘는 땅을 정원으로 가꾸었다. 타사의 정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색색의 꽃이 핀다. 그녀는 1800년대 방식으로 일상을 산다. 거품을 만들어서 땅을 살리고 구근들을 심는다. 구근들은 봄을 기다리면서 겨울을 나고 봄이면 꽃을 피워낸다. 과일과 채

꽃향기·바람결 느끼며 살라



소, 딸기 등을 직접 길러서 먹고 옥양목 천으로 된 드레스를 입으며 구식 무쇠스토브에서 빵을 굽는다. 석양이 오면 그녀의 현관에는 개똥지빠귀가 지저귀고 그녀는 벽에 걸린 등잔에 촛불을 켜고, 기쁨을 먹인 탁자에도 촛불이 켜지고 그녀와 친구들은 그녀가 구운 쿠키와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한다. 그녀의 친구들은 타사의 정원에 함께 구근을 심기도 하고 감자를 캐기도 하고 맨발로 걷기도 한다.

타사는 자신이 어린시절 꿈꾸었던, 정원을 가꾸고 염소젖을 짜고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삶을 꾸려왔다. 상업 작가로 100여권이 넘는 책에 삽화를 그렸는데, 촛불이 켜진 실내에서 수선화의 향기를 맡으면서 펜과 파스텔로 그립을 그리면서 살았다. 그녀는 부지런하고 양심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고 그린 그녀의 하이신스는 소박하고 다정하다. 그녀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빛나고 유쾌해 보인다.

그녀는 에세이의 마지막을 ‘해리 데이빗 소로우’의 말을 빌려 맺는다. “자신에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상상해온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만날 것이다.”

그녀가 말하는 성공이란 물질적 부를 쌓거나 명예를 탐하는 그런 종류의 성공은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발끝에서부터 땅의 다정한 온기를 느끼며 사는 것, 수선화의 꽃향기를 오롯이 느끼는 것, 바람의 결을 느끼며 사는 것이다. 라 실피드, 공기의 요정이 활자를 춘다. 추억의 책장에서 섬광 걸어나온 타사의 그림, 행복한 사람 타사 튜더와 함께하는 생애한 봄을 독자들에 권한다.

백은하 <소설가>



2년간 사투 벌였던 초등생의 암 투병기

정표 이야기 이정표 지음



소설가의 꿈을 키우다 갑작스레 소아암 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 벌인 1년 9개월간의 사투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정표이야기’는 지난 1월14일, 이정표군이 숨을 거두기 바로 전까지 썼던 투병기다. 답답하기만 한 병원 생활을 시작하며 정표군은 엄마에게 이렇게 울부짖는다. “나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이런 감옥에서 살아야 해요. 이런 감옥보다 더 무서워요. 왜 내가, 하필 나만...”

정표군은 절망을 타기 위해 글쓰는 일을 선택했다. 자신의 투병기를 소설로 쓰겠다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깨알 같은 글씨로 날마다 써간 일기는 소설 이상의 감동이다. 일기를 통해서라도 살아있음을 느끼고자 했던 것이다. 삶의 소중함을 알아버린 열세살 짜리 어린이가 생사를 오가며 써내려간 체험의 기록은 그 사실 자체로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돼준다. <피랑새·9천800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긴자백점회 점포 18곳 경영 노하우

신용 흥상 지음



긴자백점회(銀座百店會)는 일본 도쿄의 긴자에 있는 점포 가운데 100년 이상 된 곳 100개가 모여 만든 모임 말한다. ‘신용’은 백년을 이어온 긴자 상인들의 경영 노하우를 쓴 책이다.

상인들의 인터뷰 등을 위해 3년 동안 긴자 거리를 헤맨 저자 흥상씨는 긴자백점회에서 엄선한 점포 18곳의 시장 개척 스토리를 통해 그들의 경영 철학을 들려준다. 3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포복점 ‘에치코야’와 문구점 ‘규코도’, 볼록렌즈 경영법을 도입한 문구점 ‘이토야’, 170년 전통의 장어요리점 ‘치쿠요레이’ 등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유지했다. 저자는 이들이 오랜 전통을 유지하면서 산술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정찰제 거래 ▲확실한 상품을 산 값에 ▲꾸준한 자기 혁신 ▲매점매처하지 않기 ▲근검절약이 몸에 배도록 등 ‘긴자 상인의 18계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북폴리오·1만2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800

M관	300 (18세)	최고급관
2관	쏟다 (15세)	
3관	페인티드 베일 (15세)	
4관	중지 아니한가 (15세)	
5관	일루서니스트 (15세)	
6관	리틀 러너 (12세)	
7관	1번가의 기적 (15세)	
8관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12세)	
9관	300 (18세)	

Megatzen Day 매주 월-금 영화 4,000원 관람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취해-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일루서니스트 (15세)
2관	바람피기 좋은날 (18세)
3관	1번가의 기적 (15세)
4관	스모킹에이스 (18세)
5관	복면달호 (12세)
6관	텍사스전기를연쇄살인사건 (18세)
7관	행복을 찾아서 (연세)

★출입 입학, 최이브데이 고래 감시 경동당점 이벤트★
*기간 : 07.2.16-3.18(1달간) *좌석한 사람은 홈페이지 참조

관.도(2만원)심야상영 *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매주 화요일 영화 보는날 2,000원 할인(공휴일제외)
*매주 목요일 영화 보는날 2,000원 할인
*매주 토요일 심야 2,000원 할인
*매주 화요일 Teen Age Day 중, 고생 1,500원 할인 (공휴일제외)

콜롬버스 시네마 상부점

하남점 (무역회관 뒷편) 상부점 (삼우병원과 이마트 사이)

1관	행복을 찾아서 (연세)
2관	그놈 목소리 (12세)
3관	한니발 라이징 (18세)
4관	1번가의 기적 (15세)
5관	중지 아니한가 (15세)
6관	바람피기 좋은날 (18세)
7관	복면달호 (12세)
8관	마강호텔 (15세)
9관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12세)
10관	일루서니스트 (15세)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상부점 (10개관) *전환리 상영중 상금원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즐거움이 가득 www.mc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일루서니스트 (15세)
2관	한니발라이징 (18세) / 1번가의 기적 (15세)
3관	쏟다 (15세)
4관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12세)
5관	300 (18세)
6관	쏟다 (15세) / 300 (18세)
7관	복면달호 (12세) / 중지 아니한가 (15세)
8관	행복을 찾아서 (연세) / 스모킹에이스 (18세)
9관	페인티드 베일 (15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팝콘, 커피, 음료 등 편의점부터 마트 인터넷 예매 문의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팅 사용 가능 1588-9101

영화안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영화안니

영화안니